

제 185 호

성신 강림 대축일

1976. 6. 6.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법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 강론 ●



오소서 성신이여!

김 반 석 신부

이날은 구약의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것을 기념한 축제의 (50일간)최종일이요, 빠스카 축제의 50일간의 연장축제 최종일이기도합니다.

부활이 그렇게도 큰 축일이기에 축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성모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 사도들, 또한 70이 넘는 제자들 몇몇 추종자들은 그렇게도 정들었던 예수님을 천상으로 떠나 보내고 허전함과 목자없는 양떼 같은 심정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당신들에게 보내 주겠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오는 능력을 받을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시오”(사도행전) 이 말씀에 그들은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지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나 항상 모여 예수님에 관한 즉, 자기들의 사명을 논의 하였던 장소,성 목요일에 이별의 만찬을 나누었던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영하였고 부활 후에도 “내 주님이시오, 내 천주시도다”고 고백한 곳입니다. 오늘도 거의 100명이 넘는 예수님의 추종자 신남신녀들은 항상 모인 한자리에서 성 유언(聖遺言)에 충실할 것을 기약하며 미래의 교회 기초가 될수있는 담화를 나누고 있을때 돌연 폭풍우 같은 질풍이 그들을 엄습했고 자자의 머리 위에는 성신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무지몽매하던 그들은 겁쟁이였습니다. 비겁하였던 그들은 돌변하여 슬기로워지고 지혜와 강용한자로 변하여 기적을 행할수 있는 능력을 받아 조금도 거리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음과 몸의 준비를 갖춘다면 이와 같이 성신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죄를 녹이고 바위를 뚫는 이 은총이 속세에 너무 집착한, 비겁한 점이 많은 우리에게도 사도들과 같은 행적으로서 받을수 있도록 기도 합시다.

오소서 성신이여, 이 나라를 비추시어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산으로 일을 하게 하시고,우리 가정이 평화와 화목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나의 모든 죄를 반성하고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소서.....
아멘

(여산 천주교회)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성신강림 주일 * (기도서 P. 309)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성신이 온 누리를 가득 채우십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은 성신강림 주일입니다. 인류가 그리스도의 성신을 받아 하느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미사는 그리스도의 성신을 받아 새 사람이된 신도들이 빠스카 축제의 마지막 날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이 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도 성신을 받아 교회의 성실한 일원이 되기로 합시다.

□ 제1독서(사도행전 2장 1-11절, P. 266)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신이 내리시는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성신이 오시자 바벨탑에서 시작한 언어와 민족의 장벽은 무너져버립니다. 물과 성신으로 한때 뭉친 새 인류가 출현합니다.

□ 제2독서(고린토 전 12장 3b-7, 12-13절, P 391)

사도 바오로는 성신의 역할을 알기 쉽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오로지 성신의 은총이요 우리들을 모으시어 교회를 만드시는 분도 성신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 복음(요한 20장 19-23절, P. 259)

흠으로 아담을 빚어 흙을 불어 넣으시면 하느님의 아들이 제자에게 숨을 내불어 넣으시며 “성신을 받으라!” 하십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성신을 받아 새 사람이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평화와 기쁨과 죄의 용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영성체 후 묵상

야훼의 열이 온 누리를 덮은 이 날, 저 실락원에서부터 인류가 그리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인류는 자신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타인들에게 개방하면서, 이 사회의 구조적 악과 부조리를 개선하면서, 온 인류가 하느님의 한 백성으로 자유와 평등과 사랑 속에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역사의 종점 그리스도를 향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제의 수요일에 시작한 부활시기가 오늘로써 끝남니다 내일부터는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숲 정 이 산책



주인공은 왜 우셨을까?



교황 대사를 모시고 (3)

-교구 방문 제3일 (5월 8일)-

韓 相 甲

교황대사 교구방문 일정 가운데 가장 바빴던 날이다. 전주-금산사-정읍-고창-동해원-군산-이리-전주.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해서 예정시간보다 3시간반이나 늦게 밤 10시 40분에 도착했다.

동양 최대의 실내 입불(室內 立佛)이 봉안되어 있는 국보 제62호인 금산사 미륵전 앞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교황대사의 모습이 경건하기 그지없다. 대학원에 재학중이라는 스님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소개해 주신다. 석연대 5층석탑, 석종 등 모두 보물급이다. 금산사 측의 친절 또한 대단하다. 교황대사께서는 중도 올랐다. 금산사를 뜨기 직전에 내놓은 차 맛은 일품이다. 여러가지로 추천해 주신 수류 성당 김정원신부님과 이병진회장님께 감사드리다.

정읍 성당의 현황을 들으신 교황대사께서는 참석하신 신자들에게 「교리 연구」를 권장하신다. -“본당신부님과 더불어 교리에 대해 연구하시오. 특별히 요즈음 새로운 교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오.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고창 성당의 오현택신부님은 흥덕까지 마중을 나오셨다. 45분이나 늦어졌다. 기관장들이 고창 성당에 영접을 나오셨다. 교황대사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선포 당시에 아주 적은 숫자의 신자들로 시작되었던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상기시켰다. 바쁜 일정이지만 기관장들과 잠깐 차 한 잔 나누고 일어섰다. 다음은 음성 나환자촌인 동해원 공소다.

당국의 배려로 험난한 길에 자갈 모래가 하루 전에 일곱 트럭 분이나 깔렸어도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다. 승용차는 중간에서 다시 돌아가고 차를 옮겨 타야 했다. 결국 길은 험난했다. 이태리 수녀님들이 계속해서 환영 아귀는 중학생들이 쓰는 물감으로 어설피게 그려어도 이태리 말이 또렷하다.

-BENVENUTO A SUA

ECCELLENZA LUIGI DOSSENA-

“교황 대사님, 우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평강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많이 기다렸고, 대사님께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빠와 엄마,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축복해 주소서. 부디 그들이 모두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주소서, 감사합니다, 교황대사님. 우리 가운데 계시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가시거든 교황성하께 우리의 인사(문안)를 드려 주세요.” -고창 서국민학교 호암분교 3학년 김현철 군이 읽은 환영사다. 수녀님이 써 주신대로 이태리 말로 읽었다.

한우 23마리, 돼지 230마리, 토끼 1,180마리, 텔레비전 4대, 재봉틀 12대, 경운기와 탈곡기가 각 1대, 새끼를 5대 등 55세대 197명의 교우들에 대한 현황이 계속된다. 소위 미감아(未感兒)라 해서 순진꾸러미 어린이들이 학교가는데도 애로가 있다. 그러나 이제 공동 돈사도 짓고 공동 사료공장도 설치하겠단다. 자체부담 716만원에 280만원의 보조도 가능하단다. 그 일이 끝나면 성당도 고치고 종각도 세우고 전화도 놓아야 했는데 740만원

이 필요하단다. 1953년부터 토지 3만평을 구입, 개간하여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현황보고가 끝났다. 그저 감사할 뿐이란다.

감격에 찬 교황대사의 말씀이 시작되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신비채 안에서 고통중에 있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상생활은 모두가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에 수반하여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이 고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았습시다. 이 괴로움을 여러분의 구령뿐아니라 다른이들의 구령을 위하여 잘 참아 받으시오.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만 자신을 바치지 말고,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 위에 자신을 바치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왔기 때문에 미안하다면서 어린이들을 위해 과자를 한 보따리 내놓으신다. 애로사항을 기억하여 특별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고창읍내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에 소꿉잔을 비우니 괴로가 가신다.

시간이 한시간이나 늦어졌다. 고속도로를 달려 군산에 도착하니 4시 50분. 쉴 틈도 없다. 둔율동 성당에서는 “성체성사께 대한 열성”을 강조하시고, 그 바쁜 가운데도 신자들과의 기념촬영을 마다하지 않으신다. 기관장의 모습도 보인다. 다음 목적지를 찾기 전에 군산 월명공원을 한바퀴 돌았다. 마침 어버이 날인데다가 토요일 오후라서 슬취한 어머니의 모습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활기(?)가 넘친다.

중동성당의 현황보고에는 새성당 짓는 사업이 있었다 2,000만원은 준비했는데 1,500만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에 대사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감사드리며, 이 뜻을 교황청에 말씀드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에 신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레지오 마리에 활동의 중요성과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촉구하신 대사께서는 “성모 마리아의 신실 가운데 사는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하느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교황 바오로 6세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이리로 향했다.

이리로 향하는 길목에 대야 성당 앞에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을 위해 차를 멈췄다. 창인동 성당에 오니 저녁 8시 40분, 식사도 들지 않은 교우들이 쫓붙을 손에 들고 성당 입구 큰길까지 나와있다. 계속 수행하며 이태리말로 통역해준 박진량 신부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이 있었다 늦었음을 사과하고 기다려준데 감사한 대사께서는 “현황에서 소개된 것처럼 젊은 여러분의 교회를 젊은이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한 바람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나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이리 성모의원의 현황을 듣고 식사를 마치니 밤 9시 50분이다.

교황대사를 수행하는 본인의 집은 오늘이 이사하는 날이다. 하루종일 모른척 할 수 밖에 없었다. 고속도로를 게이트 근처의 새 집을 지날 때가 밤 10시 20분이다. 새로 이사든 집안에 불빛이 아직도 환하다.

<敎區 平協 事務局長>

3.1사건 공판 방청기 (3)

문 규 현 신부

5월 29일, 소위 3. 1사건 제3차 공판 일이다. 역시 덕수궁 골목길에서부터 법원으로 통하는 모든 길과 주변은 정·사복의 경찰과 기관원으로 뒤새끼 한 마리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경계가 삼엄하였다. 마치 대역 죄인의 재판이라도 하는것 처럼 보였다. 이렇게 철저히 한다면 대낮 강도 살인사건 등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날에는 우리 교구 김 재덕 주교님을 비롯하여 김 영일, 이 재후, 정 승현, 이 태주, 지정환 신부님이 방청하시기 위하여 상경하였다. 재판정에서 나와서 들은 이야기지만 지정환 신부님은 방청권이 없어서 밖에 계시다가 여의도 광장에 실려가는 분통이 터질 사태가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신부님을 다루었기에 열구리가 절려서 X-Ray 검사를 하셨는데 어떠신지 궁금하다.

9시 50분, 문 정현 신부님등 3. 1사건 구속자 전원이 입장한다. 흰 바지 저고리에 그리고 수갑이 채워진 양손! 그 순간 나는 두 손을 번쩍 들어 보이며 인사 드렸다. 태연하고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보내시며 답하였다. 그리고 주교님을 뵈더니 깊게 인사를 드리셨다. 문 신부님을 비롯하여 세분 신부님등 모두 건강하게 보였다. 점심 시간이 되어 휴정한 후 2시 속개되기 전 잠깐동안 우리는 서로 마주 볼 수가 있었다. "새까맣던 형님 얼굴이 빨갛해졌습니다"하고 말을 던지니, 두 손으로 얼굴을 보시며 밝게 미소를 보내신다. 그리고 주교님을 뵈고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하며 그 중에도 인사를 보내신다.

검찰에서 발표한 국가 전복을 꾀한 대역죄인치고는 너무나 태연하고 밝은 표정들이다. 그도 그럴것이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입각하여 말하고 행동하였으니 양심의 가책이 있을리 없으며 평온한 마음이다. 이날 3회 공판이 시작되자, 김대중씨는 지난 2회 공판시 못한 직접신문을 계속하여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는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 했으나 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해 신문(訊問) 하는것이라 하며 일축 시켜버렸다. 이어서 안병무씨를 비롯하여 신현봉신부님까지 11명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신문에 입한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국민으로써, 복음 정신에 의하여 생활하는 크리스찬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일을 하였음을 밝혔다.

피고들의 소신 발표가 방청객의 동감을 불러 일으킬때 마다 박수로서 동참하는 방청객을 피장시키겠다는 재판장의 으름장에 얼굴이 이그러지는 무거운 침묵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이 공판중에는 김 지하씨에 대한 발언에대한 신문이 있었다. (2월 23일 원주 기도회에서 신현봉 신부님의 강론에 의한) 이에 문 동환씨는 「그의 생활과 저서 등에 나타난 사상을 보아 공산당이 될 수 없다. 그는 진리의 탐구자이다. 그는 억박인 사람 배고픈 사람등의 입장에서 진리를 찾았다. 진리는 정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찾아야 하는데, 김 지하씨는 여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신현봉 신부님은 김 지하씨에게는 왜 복음성서도 읽지 못하며 면회가 안되냐고 물으면서, 그는 인간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에 입한 문동환씨와 신현봉 신부님의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쟁하다. 문동환씨는 왜 선언인이 되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답하여 아래 4가지 이유를 밝힌다.

- ① 자기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말하고, 말할 자유가 있는 사람다운사람이 되기 위해서
- ② 절대권은 하느님에게만 있는데 지금 이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이 이상을 그냥 바라볼 수 만은 없어서
- ③ 우리나라의 소중한 정신은 3. 1 정신, 4. 19 정신으로써, 소신을 말하고, 행하고 하는 정신이 소중한데 이 백성은 위축되어 가고 있다. 이 정신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 ④ 성서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위에 두라는 말씀에 가만이 있을 수 없었기에 선언인이 되었단다.

그리고 신현봉 신부님은 신문에 앞서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에 입각하고 진리와 정의에 입각하여 인간의 양심과 기본권 옹호할 신부로서 타당할 일이며, 이를 찾을수 없는 이 상황에 이 재판에 처해져 거부해야 겠지만 옳은것을 밝히기 위해서 응한다고 하셨다. 신부님의 신문을 마친 오후 4시경 변호인의 제의로 6월 5일, 또 토요일로 재판을 연기 했다. 이에 나는 문 신부님을 보고 말 못하는 인사를 드리고 무거운 발 걸음을 돌려야 했다. 「형님 건강 하십시오. 용기와 신념을 잃지 마세요. 형님과 동료들을 위해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하며 마음으로 외쳐 인사드렸다.

진실은 어떤 힘으로도라도 불의가 되지는 못한다. 꼭 밝혀질 것이다. 우리 모두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고 아무런 강요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질것을 계속기도 할것을 이 지면을 통해 제의 하면서 마친다.

요심이 (149) 김명호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교버)

여자보세공모집

1. 자격 : 17세 이상
2. 모집인원 : ○ ○명

※수시 모집함

3. 연락처 : 전화 ⑤8466
전주시 전동성당 골목
김영환 (아오스당)

★효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

전주 기아 용달사

차량번호 7-1058호

차주 김완식 (아오스당)
회사 전화 ⑤1524, ⑤2874
연락처 자택전화 ⑤0439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사제 연례 연수회(6월 7일<월> 오전 11시-12일<토>, 가톨릭센터)
금주간은 분당에 신부님들이 안계십니다. 연수회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구 중고등 학생회 회장단 회의-평협 확인지도(오늘 오전 11시-오후 3시, 가톨릭센터)
3.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제1차 분당 주일학교 순회(공문제 76-2호참조)
12일 11시(교산), 15시(삼례), 16시(남원), 18시(황등), 19시(입실), 13일 11시(순창, 여산-금마), 14시(금산) 이에 따른 임원회의(6월 7일<월> 오후 7시, 가톨릭센터)-각 부서별로 조사서 작성 제출 바람
4.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6월 7일<월> 오후 8시, 가톨릭센터)
5. 전주지구 올드레야(12일<토> 오후 8시, 중앙성당)-꾸르실리스타 형제 자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6. 전주시내 승천 합동미사 헌금 49,405원 감사합니다.
※ 주소 안내.....김영일 신부(전주시 전동 2가 76, 성모병원 내, 전화 ⑧8106)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수석보좌 신부 함 김 선
사 보좌 신부 사도 회장 김 병 환
사 도 회 장 이 상 용

1. 견진예식: 6일(일) 공식미사 중 주교님 주례
2. 사제 연례 연수회(피정): 7일(월)~12일(토)까지
◎ 이 기간중(7일-아침, 5시반, 12일-오후 5시, 6시반)미사만 있습니다.
3. 사도회 월례회: 6월 13일 공식미사후
4. 6월 13일부터 중·고등학생 교리를 학생미사후 30분씩 합니다. (중-교리교실, 고-강당)
5. 5분 교리실시: 6월 13일 부터 주일 매 미사후
6. 밤지거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반
7. 문신부님을 위한 헌금: 평화의 모후 P.(5천원)

(복자) 전화 ⑤2378 주 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후
◎ 사도회 임원께서는 전원 참석 바랍니다.
2. 복자 부녀부 월례회: 공식미사후
◎ 회원님께서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3. 6월 7일(월)~12일(토)까지 사제 연례 연수회(피정) 관제로 미사가 없습니다. ◎금주동안 반회합 없습니다
4. 주일학교에 학동품회사: 사도회 부회장 김글라라(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복자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6. 교부금을 완납하여 분당운영 도움시다.

(노충동) 전화 ②7032 주 임 신부 공 아 열
사도 회장 사도 회장 조 해 철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미사후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반장, 신심단체장님께서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다음주일 ◎조합원은 인강 변경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인강, 주민등록증을 지참바람
3. 신록기금: 내양 양마리아(5백원).
4. 6월 13일 공식미사에 결혼한 후 입교하신 분들을 위한 혼인감복(합동결혼식)이 있으니 사무실에 접수바람
5. 성당전등 새로 가설: 회사하신분과 수고하여주신 김광훈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 임 신부 오 현택
사도 회장 사도 회장 박 장훈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후
◎ 사도회 임원, 반장님께서 전원 참석 바랍니다.
2. 다음주 공식미사 후 상판 사도회 월례회 있습니다.
3. 미사시간 변경: 아동 및 중, 고등학생 미사-토요일 오후 6시(부모님의 협조 바랍니다.)
4. 교리안내: 아동부, 중등부-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성인부-매주 일요일 공식미사후
5. 미사 참례시에는 언제나 성가책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 임 신부 박 종근
사도 회장 사도 회장 김 용환

1. 젊은이와 학생을 위한 밤(성가연습, 미사, 특별교리-매주 토요일 저녁 8시)
2. 예비자 교리: 주일 공식미사후(회의실)
◎진자 1인→예비자 1인 안내
3. 사도회 확대회 총회, 성당 건립 위원회 창립총회

(전동) 전화 ③3222 주 임 신부 김 환철
보좌 신부 문 규현
사도 회장 사도 회장 양 윤모

1.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저녁 미사 후
2. 성화회: 오늘 10시 미사후
3. 견진자 등록 및 견진교리: 목, 금, 토 저녁미사후
4. 예비자 교리: 미혼 남녀, 성인(남자)-수요일 저녁 미사후, 성인(여자)-주일 10시 미사후
5. 동 대할<교리경시-1등(교동), 2등(서완산동), 성가경연-1등(교동), 2등(전동, 풍남동), 운동대회-1등(동완산동), 2등(서완산동)>
6. 유아세례: 10시 미사후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창 계 류 신 태 인 음 정	사도회 월례회	15,190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동 황	대의원 회의	55,600원
		제단 및 고백소 개축 원공	27,750원			대의원 월례회	62,745원
		안나회	20,515원			본당내 제조작업	13,025원
제 2 지구	대 문 울 동 명 동 열	사도회 월례회	7,820원	제 4 지구	중 노 덕 서 학 전	견진예식	74,450원
		사도회 성심회	53,720원			사도회월례회	24,020원
		바다의별 우리 아 육의행사	36,480원			예비자 교리	5,690원
		사도회, 요세회, 학생회	20,020원			사도회, 월례회, 부녀부월례회	24,405원
		용안성당 신축 위원회	26,650원			사도회 월례회	8,696원
						사도회 상임위원회, 성화회	85,601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본당 회단과 주변 제조작업	4,855원	제 5·6 지구	무 계 장 전 남 순 입	6월 20일 견진성사 준비	원
		상임 위원회 월례회	원			교부금을 완납하여 교회 운영 도움시다	5,610원
		자모회 월례회	14,240원			교부금을 완납하여 교회 운영 도움시다	6,150원
						다음주 학생회 월례회	15,000원
						6월 13일 사도회 월례회	7,510원